파키스탄 방적 - 신예 설비로 세번수 면사 공급국으로

파키스탄 면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타월용과 같은 태번수 면사를 연상할 것이지만,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최신의 설비나 기술을 도입하여, 고급 이집트 면이나 미국의 피마 면을 수입함으로써 세번수 면사에서도 중요한 공급국으로 되어가고 있다. 특히 미국의 피마 면은 파키스탄이 최대 수입국이 되어 있다는 것이 실정이다.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로부터 아프가니스탄 국경 방향으로 차로 약 2시간 가면, 파키스탄의 북서 변경주에 속하며, 불교 유적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관계용 댐으로 알려진 탈베라 댐 근처인 간다라 지방에, “가둔 텍스타일”이 있다.

가둔 텍스타일은 카라치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유누스 브라더스 그룹”의 방적 회사로서 1988년에 북서 변경주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따라 이곳에 공장을 설립하고 가동을 시작하였다. 7개의 유닛으로 나눈 공장에는 합계 19만 4천추의 정방기가 가동되고 있다.

앞으로도 증설할 계획인데, 특히 컴팩트 정방기는 쥣센(Süsseen), 도요타(豊田), 리터(Rieter)에 이어 “핀터”사제를 도입하며, 2005년 3월에는 5만 6,500추의 컴팩트기를 가동하게 되었다. 생산 품종은 6수에서 140수까지로 되어 있으며, 라이크라의 세계 3대 바이어 중의 하나로 되어 있으며, 컴팩트 코어얀을 세계 최초로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가둔 텍스타일의 꿈은 세계 시장에서 리딩 컴퍼니가 되는 것이다. 상류(up-

stream)의 소재 분야로부터 하류(down-stream)의 2차 섬유 제품까지 익숙하게 생산하여, 그룹의 방적、니트、염색、봉제 시설을 갖추고 있는 “파럴 텍스타일”과 혁신 직기를 갖추고 있는 “럭키 텍스타일” 및 “유누스 텍스타일”을 모두 합쳐 3년 내에 현 상태의 1.5배가 되는 연간 거래액 6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국의 월 마트(Wall mart)나 프루츠 오브 더 룸(Fruits of the Room)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 침장 용품이나 속내의 등을 확대할 계획이며, 파키스탄 외에도 멕시코나 캄보디아 등에도 직포나 봉제 협력 공장을 갖고 있다.

그룹의 핵심이 되는 방적이 가둔 텍스타일이며, 여기서 생산된 면사는 그룹 내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수출도 많다. 판매는 일본으로도 수출되고 있으며, 일본의 섬유 산지에서는 세번수 면사로서 좋은 평을 받고 있다. 더욱 실의 품질을 높여 “가둔”의 브랜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라홀에 본사가 있는 “사파이어” 그룹도 파키스탄 내의 10개 공장에서 면사로부터 2차 제품까지의 설비를 갖추고 수출 확대를 추진중이다. 2차 제품은 갭(GAP), 나이키(Nike) 등의 미국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파키스탄 내외에서도 튀니지(Tunisia), 중남미에 봉제 공장을 갖고 있다.

대일전략(對日戰略)으로는 고급 면사의 수출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 그 중심이 되는 공장이 “사파이어 파이버즈 No.3”이다. 라홀의 교외에 있는 이 공장에서는 세번수사나 컴팩트사를 주로 생산하며, 이웃에 있는 그룹 공장에서는 구라레의 “구라론 K-Ⅱ”를 사용한 중공사, 슬럽사는 물론 다채로운 원사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룹의 염색 공장에는 일본의 기술이 도입되어 있다.

가둔이나 사파이어 모두 풍부한 자금을 배경으로 세계의 최신 설비를 도

입하고 있으며, 검사 시스템도 외국 사람들에게는 탐나는 것이라고 한다. 이 두 회사는 모두 기술 향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의 고급 면사 시장에서 파키스탄 면사의 셰어를 높일 계획이다.♣